

감사전 재무제표의 수정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박홍규¹, 박경호^{2*}, 이유선³

¹송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²송실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³송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The Effect of Correct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n Audit Hours

Hong-Kyu Park¹, Kyungho Park^{2*}, Yu-sun Lee³

¹Ph.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³Ph.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위험은 당기 재무제표의 수정금액으로 측정하였고, 감사인의 반응은 차기 감사시간의 증감률로 측정하였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익조정 금액이 클수록 감사인의 수정금액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차기 감사시간의 증감률로 감사인이 인식한 회사의 감사위험으로 볼 수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 계획 시 감사위험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감사시간의 증감률로 감사인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한편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은 직급에 따라 다를 것이다. 회계감사는 품질관리점도사, 업무수행이사, 그리고 등록공인회계사 등이 팀을 이뤄 수행하지만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품질을 관리하는 감사인이 현장에서 감사실무를 수행하는 감사인보다 감사위험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당기 재무제표의 수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크면 감사인은 이를 유의한 감사위험으로 인식하여 차기의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키며, 이는 주로 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인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감사전 재무제표, 감사시간, 직급별 감사시간, 감사위험, 감사품질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auditor's response to audit risk. Specifically, audit risk is measured by the amount of correction of the current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or's response is measured by the rate of change of audit hour in next auditing. The amount of correction can be viewed as audit risk recognized by auditor because the degree of auditor's correction will increase as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ability is lower or the profit management amount is larger. Auditor's response is measured as the rate of change of audit hour because audit risk would be incorporated in audit plan. Although auditing is performed by a team, auditor's response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ir roles. It is expected the leaders who establish the audit plan and manage the audit quality would respond more sensitively to audit risk than the other auditors.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 amount of correction is greater than a certain level, auditors recognize it as audit risk and increase total(and leaders') audit hour in next year audit.

Key Words :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udit Hours, Rank-Specific Audit Hours, Audit Risk, Audit Quality

1. 서론

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오류나 왜곡을 발견하면 경영자에게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여러 번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우려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This article is excerpted and extended from Park's Ph.D. thesis(Soongsi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yungho Park(atoz9@ssu.ac.kr)

Received February 21, 2022

Revised March 6, 2022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감사이론에 따르면 감사위험은 감사인이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이며, 고유위험, 통제위험, 그리고 적발위험으로 구성된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피감사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에 오류나 왜곡표시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며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 한편 적발위험은 감사인의 노력을 통해 낮출 수 있는 위험이며, 감사인은 이를 통해 감사위험을 낮출 수 있다. 즉, 감사인이 '감사전 재무제표'에 반영된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정하면 '감사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 등이 그대로 표시될 가능성(감사위험)이 낮아지고 감사품질은 높아진다. 따라서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피감사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감사계획 수립(적발위험 수준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감사위험을 '감사전 재무제표¹⁾'와 '감사후 재무제표'의 차이(수정금액)로 측정하였다. 피감사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클수록 '감사전 재무제표'에 오류나 왜곡표시가 많을 것이고,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이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은 감사시간의 증감률로 측정하였다. 감사인은 다음연도 감사계획 수립시 당기의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투입 시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은 '감사전 재무제표'의 수정금액이 유의한 기업들에 대해 다음연도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감사인이 감사과정 중에 발견한 피감사회사의 감사위험이 클수록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연도 감사계획 수립 시에 더 많은 감사시간을 배정한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둘째, 감사인을 역할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품질관리검토부서와 업무수행이사)의 다음연도 감사시간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지만, 현장에서 감사실무를 수행하는 감사인(등록공인회계사와 수습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는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이 역할별로 차이가 있으며, 감사품질 향상 노력은 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관련 선행연구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차별성과 공

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감사전 재무제표' 자료²⁾를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시공시 또는 공정공시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우려되는 표본의 자기선택편의(self-selection bias)³⁾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둘째, 본 연구는 감사인의 반응을 감사시간의 수준(level) 대신 증감률(change %)로 측정하여 감사인 반응에 대한 검증모형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계하였다. 즉, 선행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우려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시켰다. 셋째, 감사인의 역할에 따라 감사위험에 대한 반응이 상이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 기술한다.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1 연구배경

감사이론에 따르면 감사위험은 기업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그리고 감사인의 적발위험으로 구성되며,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적발가능성과 보고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특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거나, 기업 및 감사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도입이 실제로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론에 비해 감사품질에 대한 실증연구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감사품질은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실증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연구들이 타당한 대응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편적인 감사인 특성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감사인 규모, 산업전문감사인 여부, 초도감사 여부, 감사의견, 감리리적 여부 등을 대응치로 사용하였고, 단편적 대응치 대신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 또는 재무제표

1) 선행연구에서는 공정공시된 잠정실적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감사전 재무제표'를 사용하였고, 감사시간과 관련성이 높은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2) 201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으로 시행된 '감사전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로 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3) 수시공시인 손익구조변경공시는 매출액 등이 작년대비 30%(또는 15%)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공시해야 하며, 공정공시는 자율공시이므로 회사가 선택적으로 공시하므로 무작위표본(random sample)이 아니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의 재작성 여부 등을 대응치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에는 '감사후 재무제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1]. '감사후 재무제표'는 피감사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인이 합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회사가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의 특성과 감사인의 감사특성이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품질이나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인식하에 수시공시나 공정공시를 통해 공시되는 '감사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감사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감사후 재무제표'의 실적과 '감사전 재무제표'의 실적 차이를 측정하고, 이를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불일치 또는 감사품질로 해석하였으며, 주로 실적차이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금지하기 위해 2013년 외감법이 개정⁴⁾된 이후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 선행연구 검토

'감사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는 2002년 공정공시 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는데[1], 손성규와 이은철(2008)은 잠정실적과 실제실적의 차이를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불일치로 해석하고, 차이가 클수록 감사인의 교체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3]. 한편, 이은철(2013)은 잠정이익 수정과 발생액의 관계 연구를 통해 잠정이익 수정 기업의 발생액 질이 수정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고, 양(+의) 재량적 발생액이 크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회계품질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8].

2013년 외감법 개정 후에는 잠정실적을 이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은철과 박석진(2016)은 개정 외감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 2014년과 직전연도인 2013년의 잠정이익 변경 빈도와 크기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잠정이익의 변경 빈도와 크기 모두 증가하는 결과를 발견하고, 이를 감사품질의 개선효과라고 해석하였다[4]. 반면, 조은정 등(2016)은 경영자능력이 우수

할수록 잠정이익 수정금액이 작다는 결과를 발견하고, 경영자능력이 회계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잠정이익 수정금액이 작을수록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석하였다[5].

본 연구와 유사하게 잠정실적 수정과 감사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강내철 등(2017)과 지은상과 손성규(2021)의 연구가 있다[1,2].

강내철 등(2017)은 당기에 잠정실적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기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더 크다는 결과를 발견하여 감사인의 잠정실적 수정은 감사품질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2]. 한편, 지은상과 손성규(2021)는 감사계약이 연초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기의 잠정실적 수정이 다음연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당기의 잠정실적 수정이 차기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당기의 잠정실적 수정을 감사위험으로 해석하여 감사위험이 클수록 감사인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1].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강내철 등(2017)의 연구와 지은상과 손성규(2021)의 연구는 '감사전 재무제표' 자료와 '감사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실적차이 여부와 차이금액을 측정하고,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2].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연구관점 과 연구설계이다. 강내철 등(2017)은 당기의 잠정실적 수정과 당기의 감사시간(감사보수)의 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양(+의)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잠정실적 수정이 클수록 감사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라고 해석하였다. 반면, 지은상과 손성규(2021)는 당기 잠정실적 수정을 감사위험으로 해석하고, 감사인의 반응을 차기 감사시간(감사보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감사시간(감사보수)을 수준(level)이 아니라 증감률(change %)로 측정해야 한다[9,10].⁵⁾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위험에 대

4)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에 있지만, 감사인의 대리작성 관행 때문에 감사인이 자기검토위험(self-audit threat)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감독당국은 감사인의 대리작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회사가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5) 차기 감사시간(감사보수)을 수준(level)으로 측정하면 연구모형에 반영되지 못한 변수의 효과(내생성)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왜곡된 결과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Kim et al. 2015).

한 감사인의 반응을 감사시간의 증감률로 측정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모두 종속 변수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감사시간과 직급별 감사시간을 사용하여 연구설계를 하였다. 감사보수는 높은 감사위험 부담에 대한 감사인의 정당한 보상 요구일 수는 있지만, 결국 피감사회사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직접적 반응을 과소측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감사인의 역할별로 감사시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이 모든 직급별로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과 대응은 감사품질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직급일수록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선행연구는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본 연구는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실증결과가 표본의 자기선택편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3. 연구설계

3.1 가설의 설정

'감사전 재무제표'와 '감사후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차이금액은 감사인이 '감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오류 또는 왜곡표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수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거나 수정금액이 크다면 이를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위험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품질 수준을 결정한다면 감사위험이 높을수록 다음연도의 감사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감사인은 당기에 감사전 당기순손익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차기의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것이다.

회계감사는 품질관리검토자, 업무수행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이 감사팀을 구성하여 진행하지만 모든 감사인이 감사위험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품질의 결정에 있어서 품질관리검토자 또는 업무

수행이사의 역할이 감사실무를 수행하는 감사인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6,7]. 따라서 감사시간이 감사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고,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이라면, 감사품질에 대해 더 많은 책임지는 직급일수록 감사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설 2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당기 수정금액에 대한 차기 감사시간의 증감은 감사인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모형의 설계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식(1)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감사시간 증감률이며 관심변수는 '감사전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의 수정 정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본 연구는 당기 감사시간과 당기 수정금액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통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차기의 감사시간을 사용하였고, 특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는 변수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내생성)를 통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달리 감사시간을 수준(level)이 아니라 증감률(change %)로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ch_Hour(or\ ch_Leader\ or\ ch_Others)_{t+1} &= \beta_0 + \beta_1 ID_t + \beta_2 SIZE_{t+1} + \beta_3 LEV_{t+1} \\
 &+ \beta_4 GRW_{t+1} + \beta_5 ACFO_{t+1} + \beta_6 BIG4_{t+1} \\
 &+ \beta_7 LIQ_{t+1} + \beta_8 FOR_{t+1} + \beta_9 ASIZE_{t+1} \\
 &+ \beta_{10} OPN_{t+1} + \Sigma YD + \Sigma IND + \epsilon_t \quad (1)
 \end{aligned}$$

여기에서,

$ch_Hour_{t+1} = (t+1년\ 총감사시간 - t년\ 총감사시간) / t년\ 총감사시간$

$ch_Leader_{t+1} = (t+1년\ 리더그룹\ 감사시간 - t년\ 리더그룹\ 감사시간) / (t년\ 리더그룹\ 감사시간)$
리더그룹은 품질관리전담자와 업무수행이사.

$ch_Others_{t+1} = (t+1년\ 실무자\ 감사시간 - t년\ 실무자\ 감사시간) / (t년\ 실무자\ 감사시간)$
실무자는 등록공인회계사와 수습회계사.

$ID_t = t년도\ 감사전\ 당기순손익의\ 수정금액(절댓값)이\ 매출액의\ 0.5\% 이상이면\ 1, 아니면\ 0;$

$SIZE_{t+1} = 기업규모(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_{t+1} = 부채비율(총부채/기초총자산);
 GRW_{t+1} = 매출액성장률((매출액-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ACFO_{t+1}$ =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BIG4_{t+1}$ = 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LIQ_{t+1}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FOR_{t+1} = 외국인지분율;
 $ASIZE_{t+1}$ =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OPN_{t+1} =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면 1, 아니면 0;
 ΣYD = 연도 더미;
 ΣIND = 산업 더미.

가설 1을 검증할 때는 식(1)의 종속변수로 총감사시간의 증감률(ch_Hour_{t+1})을 사용하고, 가설 2를 검증할 때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감률(ch_Leader_{t+1})과 현장에서 감사실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감률(ch_Others_{t+1})을 사용하며, 회귀분석에서 β_2 의 계수값 부호와 유의도에 따라 가설 1과 가설 2의 지지여부를 판단한다.

3.3 독립변수의 선정과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피감사기업의 감사위험을 차기 감사의 감사시간에 반영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위험은 '감사전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금액을 감사인이 발견하여 수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ID)로 측정하였으며, 수정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금액(절댓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 0.5%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1 또는 0의 더미값을 부여하였다.⁶⁾

통제변수에는 선행연구에서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특성 변수들과 지배구조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즉,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기업규모(SIZE), 재무위험을 나타내는 부채비율(LEV)과 유동비율(LIQ), 성장성과 이익조정 위험을 나타내는 매출액성장률(GRW),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현금흐름(ACFO)을 사용하였고, 지배구조관련 변수로는 감사인규모(BIG4)와 외국인지분율(FOR), 그리고 감사의견(OPN)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도별-산업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및 산업 더미변수도 포함하였다.

3.4 표본의 선정과 자료 추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사전 재무제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이며, 감사시간 자료는 DART에서 수작업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그리고 '감사후 재무제표' 자료는 DataGuide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한편, 자료의 비교가능성과 동질성 유지 및 실증분석 가능성 때문에 금융기업과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감사시간 자료 또는 '감사후 재무제표' 자료가 없는 표본을 제거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최종표본은 1,534 기업-연도이며, 분석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도이다.⁷⁾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1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단, 제시된 기술통계량은 극단치의 존재로 인한 왜곡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상·하위 1%수준에서 Winsorization을 수행한 후의 결과이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D.	min	p25	median	p75	max
ch_Hour	0.389	0.607	-0.341	0.004	0.159	0.581	3.007
ch_Leader	0.544	0.934	-0.648	0	0.265	0.775	4.959
ch_Others	0.402	0.673	-0.449	-0.008	0.156	0.609	3.288
ID	0.222	0.415	0	0	0	0	1
SIZE	27.343	1.574	24.421	26.222	27.140	28.211	32.001
LEV	0.492	0.225	0.071	0.323	0.494	0.639	1.161
GRW	0.044	0.175	-0.485	-0.029	0.027	0.099	0.810
ACFO	0.045	0.067	-0.159	0.010	0.045	0.082	0.240
BIG4	0.655	0.475	0	0	1	1	1
LIQ	1.924	1.795	0.335	0.938	1.368	2.102	11.348
FOR	11.251	13.051	0	2.111	5.843	16.183	60.744
ASIZE	0.102	0.303	0	0	0	0	1
OPN	0.993	0.081	0	1	1	1	1
N	1,534						

6) 수정금액의 중요성 판단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방식에 근거하였지만 결국 임의적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수정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7) '감사전 재무제표'는 2015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재무비율측정과 수정금액이 차기의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 기간은 2014년-2018년이다.

총감사시간 증감률(ch_Hour)의 경우, 전년에 비해 평균 3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 별 감사시간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더그룹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감률(ch_Leader)은 평균 54% 증가, 현장에서 감사실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감률(ch_Others)은 평균 4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그룹의 차기 감사시간 변동이 현장실무자의 경우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관심변수인 수정여부 터미변수(ID)의 평균은 22%이므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손익 수정금액이 0.5% 이상인 표본이 전체 표본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 BIG4 감사인(BIG)의 감사비중은 전체 표본의 약 65%, 그리고 적정감사의견(OPN) 비율은 전체 표본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우선, 총감사시간 증감률(ch_Hour)과 당기순손익 수정여부(ID)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장에서 감사실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감률(ch_Others)도 당기순손익 수정여부(ID)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반면, 리더그룹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감률(ch_Leader)과 당기순손익 수정여부(ID)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전 재무제표의 수정정도에 따라 감사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제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단순 상관관계이므로 통제변수를 반영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Table 2. Pearson Correlations

variable	ch_Hour	ch_Leader	ch_Others	ID
ch_Hour	1	0.453 ***	0.975 ***	0.014
ch_Leader		1	0.343 ***	0.077 ***
ch_Others			1	0.000
ID				1
N	1,534			

가설 1과 2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의 수행결과는 Table 3에 함께 제시하였다.

Table 3의 두 번째 열은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총감사시간 증감률(ch_Hour)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에서 감사위험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인 수정여부 변수(ID)의 계수값은 0.073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t-value 2.52, 5% 유의수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감사인이 감사과정을 통해 파악한 피감사기업의 감사위험이 크면, 다음연도 감사 투입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모형의 설명력(수정 R²)은 약 45%이고,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규모(SIZE)와 감사인규모(BIG4) 등의 통제변수들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방향과 유의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results of test of Hypothesis 1, 2

variable	Dep. Var. = ch_Hour		Dep. Var. = ch_Leader		Dep. Var. = ch_Others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intercept	-0.696	-2.17**	-1.393	-2.29**	-0.648	-1.79*
ID	0.073	2.52**	0.225	4.08***	0.053	1.64
SIZE	0.034	3.24***	0.070	3.54***	0.034	2.87***
LEV	0.033	0.48	0.024	0.19	0.042	0.55
GRW	0.224	3.23***	0.179	1.36	0.245	3.14***
ACFO	-0.452	-2.33**	-0.172	-0.47	-0.631	-2.89***
BIG4	0.155	5.53***	-0.266	-5.01***	0.181	5.72***
LIQ	-0.001	-0.13	0.003	0.19	-0.001	-0.12
FOR	0.000	0.32	0.001	0.59	0.000	0.74
ASIZE	-0.027	-0.63	-0.149	-1.78*	-0.018	-0.37
OPN	-0.153	-1.05	-0.053	-0.19	-0.220	-1.34
YD	included					
IND	included					
Adj R2	0.448		0.163		0.429	
F-Value	74.31***		18.55***		68.74***	
N	1,534					

***: p(0.01), **: p(0.05), *: p(0.1)

Multicollinearity is not expected because all variables show under 10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Table 3의 세 번째 열은 가설 2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감률(ch_Leader)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감사시간을 사용한 분석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이 감소(수정 R² 16%)하였지만 관심변수인 당기순손익 수정여부(ID)의 계수값이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값

(0.22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 번째 열은 가설 2에서 현장에서 감사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의 감사시간증감률(ch_Others)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수정여부(ID)의 계수값은 양(+)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앞의 두 열(두 번째와 세 번째)에 제시된 경우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열과 네 번째열이 보여주는 결과는 감사인의 역할에 따라 감사위험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감사에서 총감사시간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가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가 때문임을 시사한다.

4.3 추가분석

가설 1과 2에 대한 실증분석을 할 때, 관심변수인 수정여부 더미변수(ID)의 설정은 수정금액(절댓값)이 매출액의 0.5% 이상인 경우에는 1의 값을, 0.5% 미만인 경우에는 0을 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수정여부 더미변수를 설정할 때 분모(주로 당기순손익 금액) 대비 0.1%부터 5%까지 여러 구간을 설정하여 더미변수를 설정한 바있다.

본 연구는 당기순손익을 분모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호의 왜곡 문제(분모가 음수인 경우)를 피하기 위해 수정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정금액의 중요성 판단기준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작은 비율인 0.5%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임의적 판단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강건성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설 1에 대해 수정금액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매출액의 0.1%로 하향조정하거나 1%로 상향조정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분석의 실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 Additional analyses

Variable	Dep. Var. = ch_Hour		Dep. Var. = ch_Hour	
intercept	-0.486	-1.5	-0.629	-1.97**
ID(0.1%)	-0.030	-1.27		
ID(1%)			0.056	1.65*
SIZE	0.029	2.81***	0.032	3.07***
LEV	0.043	0.62	0.035	0.51
GRW	0.222	3.2***	0.222	3.19***
ACFO	-0.498	-2.57***	-0.466	-2.4**
BIG4	0.157	5.59***	0.154	5.51***

Variable	Dep. Var. = ch_Hour		Dep. Var. = ch_Hour	
LIQ	-0.001	-0.16	-0.001	-0.17
FOR	0.000	0.21	0.000	0.33
ASIZE	-0.012	-0.28	-0.025	-0.57
OPN	-0.212	-1.46	-0.163	-1.12
YD	included			
IND	included			
Adj R2	0.447		0.447	
F-Value	73.81***		73.93***	
N	1,534			

***: p<0.01, **: p<0.05, *: p<0.1

Multicollinearity is not expected because all variables show under 10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추가분석 결과, 수정금액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매출액의 0.1%로 하향조정된 경우에는 가설 1이 지지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매출액 대비 0.1% 미만의 수정금액에 대해서는 유의한 감사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연도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요성 판단기준을 매출액의 1%로 상향조정된 분석에서는 가설 1을 지지하지만 유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정금액이 클수록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차기 감사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1을 여전히 지지하는 결과이며, 유의도가 감소한 이유는 매출액의 1% 미만인 수정금액이더라도 감사인이 유의한 감사위험으로 인식하는 수정금액(예. 매출액의 0.5%~0.9%)이 0의 더미값을 부여받았기 때문(실증분석에서 감사위험이 낮은 경우에 해당)으로 해석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은 당기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감사전 재무제표' 수정금액을 통해 피감사회사의 감사위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감사수행 시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감사팀을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품질관리검토부서와 업무수행이사)과 현장에서 감사실무를 수행하는 감사인(등록공인회계사와 수습공인회계사)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의 다음연도 감사투입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함에 비해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다음연도 감사투입시간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감사인이 감사과정을 통해 피 감사회사의 감사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감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는 사실과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이 감사인의 역할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제시함으로써 감사관련 연구와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당국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감사전 재무제표'에 있는 여러 계정항목 중에서 당기순손익에만 초점을 둔 연구결과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감사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연구모형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E. S. Jee & S. K. Sohn. (2021). Approximating the Pre-Audit Financial Statements with the Difference between Preliminary-Actual Income: Based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63(2), 1-27. DOI : 10.22781/kicpa.2021.63.2.1
- [2] N. C. Kang, R. Y. Jung & Y. S. Do. (2017). The Revision of Preliminary Released Earnings and Audit Quality.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9(4), 113-133.
- [3] S. K. Sohn & E. S. Jee. (2008). Auditor -Client Disagreement and Auditor Change.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48, 205-229.
- [4] E. C. Lee & S. J. Park. (2016). External Audit Act Amendment for the Prevention of Auditors' Compilation Services and Revision of Preliminary Earnings. *Korean Accounting Review*, 41(1), 195-238.
- [5] E. J. Cho, J. R. Chung & B. J. Kim. (2016). The Effects of Managerial Ability on Disagreement between Manager and Auditor. *Korean Accounting Journal*, 25(4), 37-65.
- [6] T. H. Mun. (2017). A Study on the Audit Times for Each Position and the Audit Risk.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5(2), 143-165.
- [7] Y. S. Kim & K. A. Jeon. (2016). The Effects of the Position-specific Audit Hours on Audit Quality and Audit Fees. *Korean management Review*, 45(4), 1339-1375.

- [8] E. C. Lee (2013). The characteristics of modifying preliminary earnings announcement companies and its implication-Focused on the accrual quality.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50, 131-158.
- [9] Y. T. Kim, H. Li, & S. Li. (2015). CEO Equity Incentives and Audit F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2, 608-638
- [10] J. W. Park, H. W. Park, & T. B. Jeong. (2008). The Effects of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on Audit Fee Changes. *Korean Accounting Journal*, 17(1), 137-160.

박 흥 규(Hong-Kyu Park)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회계학과 (경영석사)
- 2020년 2월 : 숭실대학교 박사과정
- 2020년 5월 ~ 현재 : 국회 보좌관

- 관심분야 : 회계감사, 재무회계
- E-Mail : phk434@naver.com

박 경 호(Kyungho Park)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9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회계감사
- E-Mail : atoz9@ssu.ac.kr

이 유 선(Yu-Sun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경영석사)
- 2020년 2월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경영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회계감사
- E-Mail : 2yyus@naver.com